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지대한 의미**

8/15 월요일

아침의 누림

엡 2:7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전 15:10

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 1:14, 16-17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빌 4:23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광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후 12:9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시 36:8-9

8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9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대한 의미를 가진 문제이다. ... 우리가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신약 전체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 필요하다.(신약의 결론, 하나님, 10 장, 128 쪽)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은혜는 육체 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삼일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은혜로 오시려고 처녀에게서 출생하심으로 육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셨는데, 이것은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마지막 아담은 사람들 안으로 은혜로 들어오시려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해 넣음으로써 이러한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근원과 요소와 본질이 되시기 위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 안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확대와 표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위트니스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4 장, 12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젊었을 때 나는 은혜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다.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은혜가 아니고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이다. 그러나 신약에 따르면, 은혜는 사실상 우리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이다(요 1:16-17, 고후 12:9). 은혜는 사실상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은혜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셔서 우리의 누림으로 체험되시는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은혜란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삼일 하나님이다. 신약이 계시하고 있는 은혜는 다름 아닌 우리의 누림이 되도록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 장 17 절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말한다. 이것은 은혜가 어느 정도 인격과 같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은혜의 인격화는 하나님 자신이다. 바울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고전 15:10)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것을 깨닫고 있었다. 바울에게는 은혜가 하나의 살아 있는 인격이었다. 바울 안에서 이 인격이 그가 수고하게 한 바로 그 은혜가 되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존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그것이 은혜이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 존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몫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은혜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몫이 되실 때, 그것이 은혜이다. 은혜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은혜는 다름 아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몫으로서 누리는 삼일 하나님이다. 은혜에 대한 이런 정의와 관련해서 찬송가 376 장 1 절은 이렇게 말한다. “은혜에 대한 참된 정의는 아들 안에 주신 하나님 자신 / 은혜는 어떤 사물 아니요 내 분깃 되신 하나님 자신”.

은혜는 교리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상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은혜는 온 존재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생명과 힘과 위로와 안식과 빛과 의와 거룩함과 능력과 그 밖의 신성한 속성들이 포함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께 참여할 때, 그것이 은혜이다.(신약의 결론, 하나님, 10 장, 128-130 쪽)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으로 한 사람으로 오시어 믿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신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육체 되시는 방식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다. 그러므로 은혜는 근원이신 아버지와 요소이신 아들과 적용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에게 분배되시는, 육체 되신 삼일 하나님이다(고후 13:14).(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9 장, 37-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하나님, 10 장

8/16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1:12

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히 10:29

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고전 15:45b

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민 6:22-27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24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25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6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27 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되고 합당한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신약의 결론, 하나님, 10 장, 128 쪽)

은혜의 근원, 은혜의 요소, 은혜의 적용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신성한 삼일성의 세 위격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분배 안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라 불리고(고전 15:10, 고후 1:12, 8:1, 9:14), 그리스도의 은혜라 불리며(고후 8:9, 12:9, 13:14), 그 영은 은혜의 영이라 불리신다(히 10:29).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과 같은 어구(語句)들은 동격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하나님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빛은 빛이 하나님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은혜이심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은혜는 아버지께서 근원이 되시고, 아들께서 요소가 되시며, 그 영께서 적용이 되시는 삼일하나님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9 장, 3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버지는 근원이시요, 아들은 요소이시며, 그 영은 적용이시다. 근원은 바로 은혜의 기원이고, 요소는 은혜 자체이며, 적용은 요소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용어들을 연구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방문한다면, 이것에 대해 그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삼일 하나님은 근원이신 아버지와 요소이신 아들과 적용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다. 이제 이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고, 마침내 우리가 된다. 이 은혜는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9 장, 38 쪽)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체현이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연합되어 하나 되시려고 육체가 되셨다.

믿는 이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다.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실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나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시요 표현이시며, 영은 아들의 실재이시자 실재화이시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는 표현되시고 보여지시며, 아들은 그 영으로 계시되시고 실재화되신다. 이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몫, 곧 은혜가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태초에 계셨던 분이신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심으로써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셨다(요 1:1, 14, 16-17). 삼일 하나님께서 거치신 과정 가운데 첫 번째 과정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과정은 바로 육체 되심이었다. 태초에 계셨던 분이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방식으로 오심으로 은혜가 총만하게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다. 그분은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심지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분께서 오셨을 때 은혜도 왔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율법은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왔다. 사실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은혜가 왔다. 이분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 안으로 연합되시어 하나님-사람이 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가 우리의 공급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이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구원이다.(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2 장, 39 쪽, 3 장, 59-6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2-3 장

8/17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총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벤전 5:10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 28:19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요 20:17, 22

17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계 22:21

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가 총만하였다. 이것은 은혜가 육체 되신 하나님임을 보여 준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만 계셨다면, 그분은 은혜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이시기만 할 뿐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은혜이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지 않으셨으므로 은혜가 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은 육체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육체가 되셨을 때 또한 은혜가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사람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 이러한 임마누엘, 곧 육체 되신 하나님은 사람의 누림을 위한 은혜이시다(요 1:1, 14). ... 먼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 체현되었고, 그런 다음 아들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재화되셨다. 이 영은 은혜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

은혜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분, 곧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하나님-사람이 되시어 인간 생활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시다. 지금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비교 딤후 4:22). 은혜이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공급과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게 되셨다.(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2 장, 29, 39-4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육체 되신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마 28:19).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표현되신다(요 14:8-11). 아버지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신다. ...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다. 결국 그분은 배반당하셨고 체포되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 그분은 죽으셨고 장사되셨다. 삼 일째 되던 날에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안식일 다음 날, ... 자매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요 20:17) 그날 저녁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22 절)

하나님이신 그분은 육체 되심을 통해 변형되시어 사람이 되셨다. 육체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은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변형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표현되시며, 아들은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고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신다(요 14:16-20). 이제 그분은 우리의 은혜가 되실 자격을 갖추셨다. 것처럼 변형되신 분께서 바로 은혜이시다.

그 영은 믿는 이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 그들 안에 계시는데, 첫째로 그분은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요 7:37-39), 둘째로 그분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며(6:63), 셋째로 그분은 그들이 들이실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이 되신다(20:22). 그 영은 또한 그들이 누리는 신성한 은혜가 되신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누리는 은혜이시며, 심지어 영원토록 누리는 은혜이시다(계 22:21).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신 말씀께서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시므로써 신성과 인성의 연결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이 하나님-사람은 옳고 그름이나, 또는 좋고 나쁨을 주의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주의하시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그분께서 가져오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인격이시다. 그분께서 사시므로 나도 산다. 그 분께서 움직이시므로 나도 움직인다.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주도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배필이며 그분의 몸의 일부이다.(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3 장, 60-63, 65-6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3 장;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11 장

8/18 목요일

아침의 누림

엡 1:6

6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 3:17

17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마 17:5

5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살후 2:13-14

13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4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 17:22-24

22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4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다. ... 에베소서 1 장 6 절에 계시된 것은 앞 절에 언급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의 결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는 것이 아들의 자격(엡 1:5)을 얻은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분의 표현이 찬송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결국 우주안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은 아들의 자격(롬 8:19)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 결과 이 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33 장, 3338-333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되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육체 되심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고, 그 은혜와 실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1 장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14, 16-17 절).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존재이고, 영광은 표현되신 하나님이다(출 40:34).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엡 1:6)이라는 말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표현되시고, 그분은 이러한 표현이 찬송되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느낌이 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 자신이고, 영광은 나타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표현되시는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1 장 6 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와 은총의 대상이 되도록,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받은 위치 안으로 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은혜받은 위치에 있고 은혜의 대상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있으며 그분의 누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 누림이 있게 되어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은 우리를 누리신다. 이제 은혜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쁨과 만족이다.

에베소서 1 장 6 절에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이 아들을 기쁘게 여기신다(마 3:17, 17:5).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그분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대상으로 삼으신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대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신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완전한 기쁨과 만족과 누림을 얻으신다는 뜻을 전달해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위치가 은혜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높이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타고난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고 미리 정해지고 거듭나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따라서 자신에 대해 그러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받았다.

더욱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를 적용했다(엡 1:7).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할 뿐 아니라(7 절) 가득 차서 넘친다(8 절). 하나님은 한 면에서 영원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 온갖 지혜로, 또 다른 면에서 시간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집행하시기 위해 온갖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고(엡 1:10),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이 되게 하며(11 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을 준다(14 절). (신약의 결론, 영문판, 333 장, 3339-334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333 장

8/19 금요일

아침의 누림

엡 2:4-5, 8

4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8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 1:17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딤후 2:11-12

11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속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고, 현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며,

딤후 3:5-7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낚는 씨와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7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롬 5:1-2, 5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2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5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 장 8 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시작 부분에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보여 주시는(7 절) 이유를 제시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

에베소서에서 은혜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하나의 인격이 아닌 어떤 사물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은혜란 거저 주어진 어떤 선물에 불과하다. 은혜에 대한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거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과분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피상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요한복음 1 장 17 절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고 말한다. 이것은 은혜가 어느 정도 인격과 같음을 가리킨다. 에베소서는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1 장, 206-20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단지 가련한 상태에서 구출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공흠이 풍성하신 분이신 구주께서 비천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이다. ...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의하면, 구원이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전달되시는 것이다. 이러한 분께서 우리 안으로 은혜로서 들어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일단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전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일으켜지며, 하늘들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은혜는 바로 구원하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은혜로 전달되시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분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셔야 했다. 그분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심으로 이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실 수 있다.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전달되실 때, 그분은 구원하는 은혜가 되신다. 이 은혜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넘치는 은혜이다. 은혜는 우리 안으로 전달되시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다.

과정을 거쳐 우리 존재 안으로 전달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은혜이시며 넘치는 은혜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전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엡 2:7). 그것에는 생명, 빛, 능력과 같은 많은 방면들과 미덕들과 속성들이 있다. 생명과 빛과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에게 사람을 들어 올릴 힘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구덩이 안으로 떨어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만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는 사랑과 지혜가 필요하셨다. 이런 것들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일부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는 여러 시대, 곧 천년왕국시대와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이 은혜를 보여 주실 것이다.

에베소서 2 장 8 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질화이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실질화한다. 이 실질화하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질화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날에 믿음이 우리 안에 분배되었고, 우리는 믿게 되었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물음지도 모른다. 우리는 비록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으로 전달된 은혜의 일부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1 장, 207-2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5, 21 장

8/20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1:5-6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6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 2:7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롬 8:14-19, 28-30

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17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19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주제를 주의 깊게 연구해 본다면, 영광은 바로 표현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우리는 전기를 하나의 예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는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전기가 빛으로 표현될 때, 그 빛이 바로 전기의 영광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계시는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 표현되실 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영광은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표현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은 이 표현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느낌이 있다. ... 때로 탁월한 집회 후에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웠다!”라고 말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표현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5 장, 62-6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선택받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진 것과, 우리가 아들의 영광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위치를 얻은 것과, 우리가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고 아들의 자격의 완성,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얻을 것이며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상속받을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떠한 영광인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 아들의 위치, 아들의 형상, 아들의 자격의 완성, 아들의 자격을 상속받음이라는 여섯 가지 항목을 기도하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영광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아들의 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아들의 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찬양하지 않는다. 대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때, 종종 그것은 “주님께 감사합니다.”를 의미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와는 관계없이 주로 그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와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분을 찬양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여러분이 참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와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만 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관하여 좋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분의 표현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아마 천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천사들이 우리가 가진 아들의 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귀신들은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강탈했던 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가진 아들의 자격으로 인하여 천사들 뿐 아니라 우주 안의 긍정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롬 8:19)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는 현시대에서 산출된다. 오는 여러 시대란 천년왕국 시대와 영원 미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신의 풍성이다. 그 풍성은 영원히 공개적으로 보일 것이다.

에베소서 2 장 7 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고 말한다. 인자함은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자상한 미덕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5 장, 63-64 쪽, 21 장, 20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 년, 3 권, 하나님의 구원의 완결, 3 장; 요한복음에 있는 생명과 건축, 10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10, 333 장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2, 3 장
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3 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5, 21 장

2022. 8. 15 ~ 2022. 8. 19

단체로 읽을 말씀: “생명 나무”, 9, 10 장

찬송: 497 (英) 은혜에 대한 참된 정의는 (中:376)

- 1 은혜의 가장 높은 정의는 그 아들 안의 하나님 자신 은혜는 어떤 사물 아니요 우리 몫 되신 하나님 자신.
- 2 하나님 육체 되어 오심은 사람이 그를 얻게 함이니 주 말미암아 얻은 은혜는 우리 안에 온 하나님 자신.
- 3 바울의 은혜 그리스도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였네 그는 이 은혜 체험함으로 그 누구보다 더 수고했네.
- 4 우리의 안에 능력의 주만 의지할 만한 참 은혜일세 늘 족한 은혜 능력 주시며 하나님 목적 이루게 하네.
- 5 이 은혜는 곧 주 그리스도 우리가 체험해야 할 그분이 참된 은혜 더 알기 위해 은혜로 누림 더하기 위해.

8/21 주일

아침의 누림

엡 1:3-12

-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 6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 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 8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11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12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